

[바둑]

이재웅 '빠른 손' 선두 닦아채다

〈광주 GS KIXX〉

한국바둑리그, 신성건설전에서 '선봉장' 목진석 9단 격파 속기기전(13승1패) 능해 광주 GS KIXX 든든한 '지킴이'

광주 GS KIXX가 한국바둑리그에서 고공비행을 시작했다.

광주 GS KIXX가 지난 24일 현재 2006 한국바둑리그 8개팀 가운데 1위를 고수하는 등 우승후보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GS KIXX는 최철한 9단, 박정상 5단 '투톱'을 비롯 이재웅 4단, 홍민표 4단, 최원용 4단 등 막강 라인업이 불꽃 투혼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장 최철한 9단과 박정상 6단은 최근 3라운드 경기까지 3전 전승을 거두는 등 팀을 견인하고 있다.

최원용 4단과 홍민표 4단이 각각 2패를 기록, 개인적으로 다소 주춤거리는 상황이지만 최철한 9단 등 나머지 선수들의 활발한 지원자력으로 전력부수를 너그럽게 메우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주무대로 활동해 왔던 이재웅 4단(사진)의 정식 무대에서의 활약은 눈부시다.

24일 현재 23승4패로 승률 1위, 다승 4위의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 4단은 지난 21일 2006 한국바둑

리그 신성건설전에서 '선봉장' 목진석 9단을 백 불계로 꺾는 기업을 토했다.

4장으로 나선 이재웅 4단이 승리함에 따라 KIXX는 지난해 우승팀 신성건설을 3-1로 꺾고 승점 7점을 따내며 1위로 도약했다.

이 4단은 속기기전 성적이 무려 13승 1패를 기록할 정도로 '빠른 손기술'을 자랑하고 있어 팀의 기대주로 믿음을 한몸에 받고 있다.

주장 최철한 9단은 "개인적으로 이 4단이 친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팀이 어려울 때 결정적인 승기를 잡아내는 등 결과로 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GS KIXX는 한국리그가 뚜껑을 열기전부터 우승우 후보로 꼽혔었다. 그러나 기사들의 면모나 실력 등 객관적인 전력에 앞서는 KIXX만의 감점은 팀웍이다.

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20대로 화이팅이 넘치는 데다 대국장에서 서로를 격려, 응원하는 모습이 전



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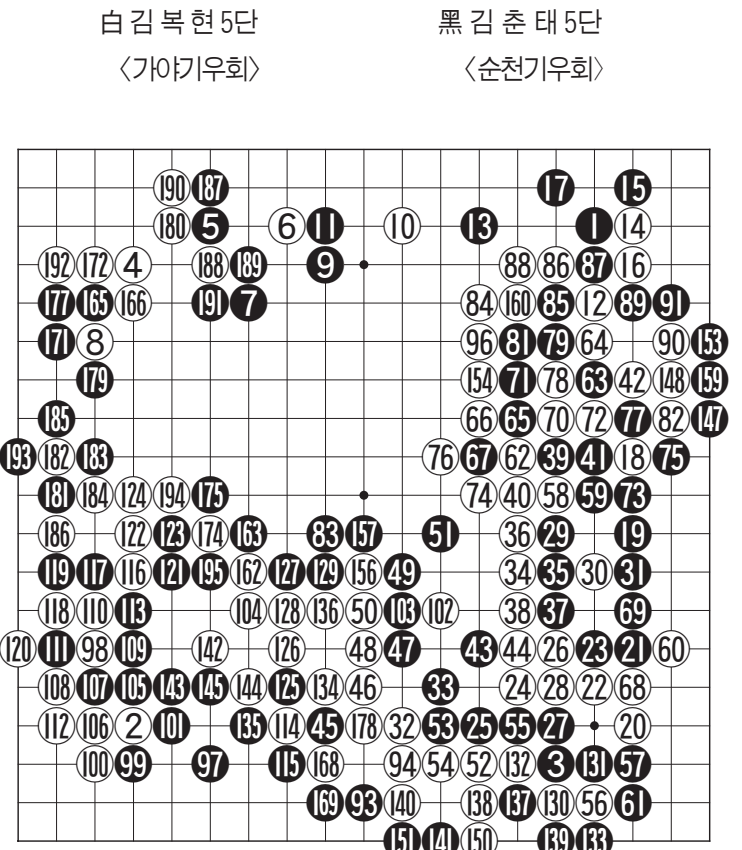
최철한 9단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고향이 광주는 아니지만 광주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지역 연고제를 도입한 한국바둑리그는 28일 부산에서 첫 지방 투어를 나선다. 부산 파크랜드(7위)와 경북 월드메르디앙(8위)의 3라운드 4게임이 열린다. 한국바둑리그는 대회 홍보와 지역 바둑 붐 조성을 위해 부산 투어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씩 8개 팀의 연고지를 순회하며 대회를 개최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관록의 승리
총보(1~195)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허남석)는 그동안 타이틀전 등 많은 바둑행사를 유치해 바둑 발전에 기여해왔다. 인근 지역 바둑팬들도 대회를 통해 서로의 실력을 겨루며 친선을 다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어린이와 중·고생들까지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바둑잔치가 지역 바둑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이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최강부 개인전 결승전이었다. 정상 대결을 벌인 김복현 5단과 김준태 5단은 이 지역의 최강자들이다.

결과는 관록에서 앞선 김준태 5단의 압승이었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 강자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탓인지 대국은 대국자나 관전자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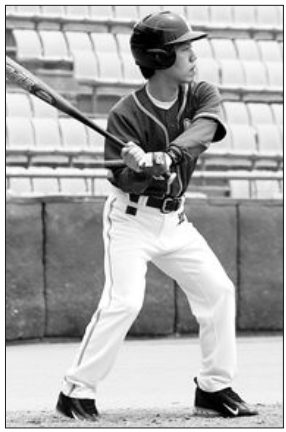
두 잔치 분위기 속에서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김복현 5단의 패인은 초반 우하귀의 정식 선택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흑이 21로 합공하고 나왔을 때 백 22로 나간 것이 결과적으로 판을 다질 수 없었다.

이후 김준태 5단은 특유의 완력을 과시하며 백을 몰아부쳤다. 성동격서의 전법 등으로 도처에서 득점을 올리며 집 차이를 벌였고 백 대마를 압박한 끝에 결국 김복현 5단의 항시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결승전은 한마디로 김준태 5단의 관록이 돋보인 한판이었다. 흑 195수 끝 흑 불계승

〈규규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타자로 변신한 이창호·최철한



프로기사 야구단 '기(棋·일명 흑백 스톤즈)' 팀의 이창호 9단(사진 위)과 최철한 9단이 지난 21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예인 팀 '한(恨)'과의 경기에서 호쾌한 스윙을 선보이고 있다. '기'가 5대12, 7회 콜드게임 패를 당했다. <한국기원 제공>

내달 4일 장애인 바둑대회

전국장애인바둑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전국장애인 바둑대회가 다음달 4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지난 2000년 조훈현 서능욱 이창호 유창혁 등 프로 기사들이 사재를 털어 만들어낸 행사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배 대회로 '격상'됐다.



조훈현·서봉수, 내달 추억의 '조-서대결'

역대 국수전, 이창호·루이9단 각각 누르고 결승 올라

초에 추억의 조-서 대결을 펼친다. 두 기사는 70년대와 80년대 술한 명승부를 펼치며 '조서시대'를 풍미했던 한국바둑계 최고의 라이벌이었다.

국내 최고(最古) 기전인 국수전의 제50기를 기념해 돌아올보가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김인, 조훈현, 서봉수에 이어 이창호, 최철한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수 타이틀을 차지했던 8명의 전·현 국수가 참가했다.

1기부터 9기까지 무적의 국수시대를 구가했던 조남철 9단은 고령과 건강문제도 불참했다. 이 대회에서 조훈현 9단은 윤기현 9단과 이어 4장에서 제자 이창호 9단을 제쳤으며, 서봉수 9단은 하찬석 9단과 루이 나이웨이 9단을 연파하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역대 국수 중 최다 우승자는 총 16회 우승의 조훈현 9단.

다음으로는 조남철 9단과 이창호 9단이 각각 9회씩 우승했다. 현 국수 타이틀 보유자는 이창호 9단.



지금까지 공식 상대전적은 조훈현 9단이 243승 117패로 우세하나, 2000년 이후에는 5-5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 Guide) section with 'Happy Time' and '영화안내' logo.

메가박스 (MegaBox) cinema listings for various theaters and movies.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s for movies like '미션임파서블 3'.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s for movies and showtimes.

에이플러스부동산컨설팅 (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partment rentals and sales.

아주 특별한 제안 (A Very Special Offer)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국민지도 (National Map) advertisement for a map service.

중앙국토개발신팀 (Jungang National Land Development Team) advertisement for land development.

GS부동산컨설팅 (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용한공인중개사 (Yonghan Real Estate Broker)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brokerage.